

# 광산구, 육아 휴직자에게도 재택근무 기회준다

### 코로나19 시대 비대면 업무 강화 '육아 재택근무' 시행 육아 휴직 공백 최소화·저출산 극복·인력난 해소 기대

광주 광산구가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육아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비대면 업무가 강화되는 코로나19 시대에 대응하고, 저출산 극복 등을 위한 조치다.

16일 광산구에 따르면 자녀를 돌보기 위한 육아 휴직자가 늘어남에 따른 공직 업무 공백과 저출산 극복, 육아 휴직으로 인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육아 재택근무제'를 도입한다.

'육아 재택근무제'는 이미 공직사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택근무'와 주당 15~35시간 일하는 '시간선택제 전환근무'를 광산구 실정에 맞게 결합한 것이다.

육아 휴직 중이거나 휴직을 계획중인 공무원 중 희망자를 상대로 하루 4시간 집에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은 가족을 위해 보낼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광산구는 코로나19 등에 따른 비대면 상황을 감안해 이번 '육아 재택근무'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육아 휴직자의 업무 공백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광산구 공무원 휴직자는 2018년 74명, 2019년 88명, 올해 8월 현재 122명으로 이 가운데 66%가 육아 휴직자다. 매년 신규 공무원을 채용하고 있지만, 육아 휴직자의 결원을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광산구의 설명이다.

특히 최근엔 코로나19 방역 업무와 수해 등 재

난지원 업무가 더해지면서 공직사회 전체의 피로도 가중으로, '육아 휴직자'도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또 9급 신규 공무원 1명 채용시 연 평균 비용이 8000만원(한국 납세자연맹 2017년 자료)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가 인력 수요를 신규 고용으로 대응하는 것은 재정 악화를 불러올 수 있다는 점에서, 신규 인력 채용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광산구의 이번 정책 결정에 대해 육아휴직 예정자 등 내부에서도 반기는 분위기가 있다.

최근 광산구가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휴직자 중 55%와 육아 휴직자 중 60%가 재택 근무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재택 근무 희망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 해소(54%)와 업무의 연속성 유지(40%)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재택 근무 시간은 3~4시간이 적당하고, 적합한 업무 분장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비대면, 비접촉 방식의 근무를 권장하고 행정안전부는 코로나 사태 초기부터 재택근무를 장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광산구의 육아재택근무제 도입에 대한 기대도 높아지고 있다.

광산구는 이번 '육아 재택근무'는 시범 사업으로 출발하지만, 제도를 정비해 향후 그 폭을 넓혀간다는 방침이다.

재택 근무에 적합한 업무를 지속 발굴하고, 재택



광주 광산구의 한 공무원이 최근 정부의 코로나19에 따른 재택근무 권고 조치에 따라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면서 비대면 온라인 업무를 보고 있다.

근무자들이 주당 20시간 이내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업무 분장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공무원들이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다양한 여건을 조성하는 한편 이번 시범 사업의 효과를 잘 정리하고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는 새로운 제도로 정착시키겠다"면서 "업무과중 등으로 출산을 꺼리는 분위기를 전환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전방·일신방직 부지 개발 계획 상업·주거 등 용도 변경 주목 광주시, TF위원 첫 회동회의

광주시가 전방(옛 전남방직)·일신방직 공장 부지 개발 계획 구상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16일 광주시에 따르면 개발 계획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된 '전방·일신방직 공장 부지 전문가 합동 태스크포스(T/F)'는 15일 북구임동 공장 부지 등에서 합동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T/F 단장인 김중효 광주시 행정부시장과 공장 관계자, 문화계 전문가 등으로 이뤄진 TF 위원이 참석했다.

이들은 공장 부지를 둘러보고 건축물 보전 방안 등을 논의했다. 다음 달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시는 T/F 회의를 통해 도시계획, 경관, 교통, 문화, 환경 요인 등을 종합한 개발 계획을 만들고 공장 측과 협상할 계획이다.

공장 부지는 지난 7월 부동산 개발 업체에 매각됐다.

업체가 계약금(10%)만 지급해 여전히 부지 소유자는 여전히 전방과 일신방직이다.

매각 업체는 공장 부지를 공업용지에서 상업이나 주거 용지로 변경해 호텔, 업무 시설, 쇼핑 시설, 주상복합 시설, 도로, 공원 등을 조성하겠다는 제안서를 시에 냈다.

시는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되기 전까지는 전방·일신방직과 협의를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방직산업 메카인 공장 터를 시민 편의와 공익성을 담보한 방식으로 개발하기로 하고 용지 변경 등의 절차에서 공장 측과 협의회 이 부분을 반영한 개발 계획을 마련할 방침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광주지역 최초 비대면 전시관 쌍암공원에 '별밤미술관' 개관

광주 광산구는 "지난 15일 쌍암공원에 지역에 술가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함께하는 비대면 전시관 '별밤 미술관'을 개관했다"고 16일 밝혔다.

'별밤 미술관'은 광주 최초 비대면 상설 전시관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시설이 임시 휴관 중인 상황에서 예술인 활동을 장려하고, 비대면 전시 문화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된 도심 속 찾아가는 미술관이다.

광산구는 구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피로감을 줄이기 위해 매일 다양한 전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별밤 미술관은 밤에 열리는 야간 특화 전시관으로, 자연과 예술 작품이 한데 어우러져 지역 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야간 명소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별밤 미술관 개관 기념 초대전으로 송필용 작가의 '꿈은 소리는 소리이다'를 시작으로 10월 이호국 작가, 11월에는 이이남 작가의 작품을 전시된다.

미술관은 광산구 쌍암공원에서 매일 오후 6시부터 밤 12시까지 운영되고, 전시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광산구 문화예술과로 문의하면 된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김삼호 광산구청장 재택근무로 PC영상회의의 주제...직원들과 구정 현안 논의

# "코로나·추석명절 특별 방역대책은 잘하고 있습니까"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이 지난 14일 재택근무를 갖고 간부 공무원들과 PC 영상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김삼호 광주 광산구청장은 지난 14일 재택근무로 PC영상회의를 주재하고, 구정에 출근한 공무원들과 구정 현안을 점검했다.

광산구는 지난 14일부터 18일까지 재택근무 시범 실시에 들어갔다.

이번 광산구의 시범 실시는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 내 코로나19 확진자 발생과 코호트 격리에 대비하고, 재택근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기술적 오류를 점검·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김 구청장은 매일 전체 공무원의 20%가 참여하는 재택근무 시행 첫날 집에서 영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비상대책, 추석명절 특별 방역대책, 현안업무 등을 놓고 구 공무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광산구 재택근무 직원들은 집에서 정부원격근무시스템(GVPN)을 이용해 구정을 처리하고 있다.

광산구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시 구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수 인력을 제외한 전체 인원이 재택근무에 들어가게 한다는 방침이다.

김삼호 광산구청장은 "코로나19 사태로 재택근무와 PC영상회의는 이제 낯선 풍경이 아니다"면서 "광산구는 변화된 환경을 선도하면서, 시민들에게 빈틈없고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승렬 기자 srchoi@kwangju.co.kr

##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도축장 잔류물질 검사 강화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생산단계(농장·도축장)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오는 30일부터 도축장 출하가축 대상 잔류물질 검사를 강화한다"고 16일 밝혔다.

광주시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의한 '국가잔류검사 프로그램(NRP, National Residue Program)'에 따라 관내 도축장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검사(모니터링, 규제검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2591건을 검사해 2건의 양성을 검출했다.

시는 앞으로 식육 잔류물질 검사의 경우 도축장 모니터링검사에서 양성으로 판정돼 잔류물질 검출 우려가 있는 식육에 대해서는 잔류물질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는 정밀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고를 보류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제도 시행으로 유통 전 신속한 잔류여부 판정돼 도축장에서 부적합 식육을 신속하게 폐기할 수 있고, 잔류 우려 축산물의 유통을 완전히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귀할수록 전문 브랜드 비타민하우스

**45** 북위 45도 이상  
흑한에서

**15** 15년을 자란  
차가버섯을 엄선

**12** 12배 고농축으로  
영양을 짝 채운

**시베리안 차가버섯**

비타민하우스 전속모델 서경석

Vitamin House  
구입문의 1588-8529